

JUVENILE TITLES

FICTION

제목 : STARGAZING FOR BEGINNERS

가제 : 별을 보는 아주 쉬운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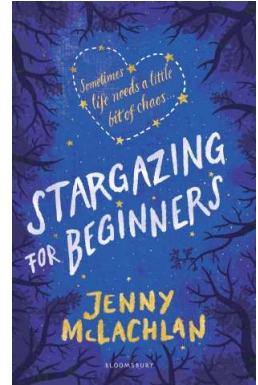
저자 : Jenny McLachlan

출판사: Bloomsbury Childrens

발행일: 2017년 4월 6일

분량 : 352 페이지

장르 : YA 소설



- * 덴마크, 프랑스, 헝가리, 이탈리아, 포르투갈, 터키, 스칸디나비아 지역 판권 계약 체결
- * 과학과 우주에 폭 빠진 소녀에게 떨어진 두 가지 미션 - **NASA**까지 무료 견학기회가 걸린 대회에서 승리하는 것, 그리고 엄마 대신 꼬맹이 동생 돌보기

일곱 살 때 할아버지가 손수 만들어준 로켓에 탑승한 이후, 맥의 관심사는 늘 우주와 별이었다. 8년이 지나 이제 어엿한 중학생이 된 맥은 물리 선생님도 “책 한 장 보지 않고도 우주에 대해 세 시간은 줄줄 이야기할 수 있는 아이”라고 단언할 만큼 우주에 대해서는 모르는 게 없었다. 하지만 아직 말도 제대로 못하고 기저귀를 차고 다니는 꼬마 동생은? 그 영역은 맥에게 광활한 우주보다 더 알쏭달쏭한 수수께끼일 뿐인데, 엄마가 덜컥 동생을 맡기고 떠나버렸다. 하필 무료로 미국 항공우주국까지 가서 견학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임박한 시점에, 맥에게 이 어려운 미션이 주어진 것이다. 과연 맥은 갑자기 도맡은 베이비시터 역할을 무사히 해내고 동시에 치열한 경쟁에서 우승할 수 있을까? 위기에 빠진 맥의 좌충우돌 일상이 시작된다.

시내에서 중고물건 파는 가게를 운영하는 엄마는 늘 눈코 뜰 새 없이 바빴다. 그린피스 회원으로 열심히 활동하느라 이런저런 기금모금 행사를 이끌고, 주말 농장도 가꾸고, 틈만 나면 지구를 어떻게 하면 더 깨끗하고 살기 좋은 곳을 만들 수 있을지 고민했다. 맥과 동생 리사까지 세 식구가 살기에 그리 넓지 않은 집에서도 이리저리 구조를 바꾸고, 아이들이 즐겁게 놀 거리를 만들며 바쁘게 움직였다. 맥이 미국 NASA 견학 기회가 달린 대회 소식을 접한 그날도, 엄마는 학교에 가려는 맥에게 저녁까지 동생을 좀 봐달라고 부탁했다. 해외 봉사활동을 떠나는 친구가 짐이 너무 많아 공항에 좀 태워다 달라고 부탁해서 도와줘야 한다는 것이다. 리사는 아직 기저귀를 차고 돌아다니며 웅얼대는 맥의 꼬마 동생이다. 해야 할 공부도 많아 영 내키지 않았지만 리사는 그러겠다고 약속한다. 하지만 그 약속이 엄마 말처럼 방과 후 그저 몇 시간으로 끝나지 않을 줄은 맥도, 엄마도 전혀 몰랐다.

공항에만 다녀온다던 엄마는 맥이 학교를 마치고 리사를 보고 있을 때 다급히 전화를 걸어왔다. 그리고 '아주아주 굉장히 중요한 일' 때문에 지금 비행기를 타러 가는 중이며 며칠 동안 태국에 다녀와야 하니 엘사를 잘 돌봐달란다! 맥의 고난은 이때부터 시작됐다.

맥이 사는 영국에서 미국에 가려면 큰 돈이 필요한데, 엄마도 할아버지도 그럴 형편은 안 된다는 걸 맥은 잘 알고 있었다. 그러니 이번 대회에서 무조건 우승하는 것만이 사진과 그림, 책으로만 보던 우주를 가까이서 접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대회 내용은 '내가 생각하는 우주란 무엇인가'에 대해 무대에 올라 3분 동안 사람들 앞에서 발표를 하는 것이 전부지만 맥에게는 보통 일이 아니었다. 선생님 말대로 우주에 대해서는 모르는 것이 없지만 사람들 앞에 나서는 것이 두려웠기 때문이다. 초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수업 시간이면 선생님의 질문이 채 끝나기도 전에 손을 번쩍 들고 답을 맞히는 일을 누구보다 즐겼던 맥은 언젠가부터 자신의 그런 행동이 아이들의 놀림감이 된다는 사실을 깨달았고, 중학교에 올라온 직후 과학 시간에 어려운 문제를 맞힌 후 선생님이 비아냥대고 아이들이 키득대는 일을 겪은 이후부터는 입을 꼭 닫고 말았다. 상태는 점점 심각해져서 나중에는 앞에 나가 말을 하는 것 자체가 두려운 지경에 이른 것이다.

중대한 대회의 우승을 가로막는 요소는 또 한 가지가 있었다. 맥 못지 않게 과학을 잘 하는 경쟁자, 에드였다. 심지어 잘생기기까지 한 에드는 자신의 뛰어난 지능과 외모에 대해 자신감이 하늘을 찌르는 아이라, 그 꼴이 보기 싫어서라도 맥은 꼭 이겨야겠다고 마음 먹지만 무대 위에서는 에드가 훨씬 더 당당하게 발표할 것이 뻔했다. 이 와중에 엄마까지 리사를 떠 말기고 사라지다니? 이제 맥은 우주에서 기적이 벌어지길 비는 수밖에 없었다. 과연 맥은 이 모든 골치 아픈 상황을 이겨내고 승리를 거머쥔 수 있을까? 사랑스러운 등장인물과 지극히 현실적인 이야기가 읽을 수록 폭 빠지게 하는 매력적인 소설이다.

<저자 소개>

제니 맥라클란(Jenny McLachlan)은 영어 교사로 일하다가 YA 소설을 쓰기 시작했다. 데뷔 소설인 『FLIRTY DANCING』 시리즈와 『LOVE BOMB』 등을 발표했다.

제목 : FOUR DEAD QUEENS

가제 : 네 여왕 살인사건

저자 : Astrid Scholte

출판사: (에이전시) ICM Partners

발행일: -

분량 : -

장르 : YA 소설



*** 10년 이상 영화와 애니메이션 시각효과 분야에서 일해온 호주 출신 작가의 데뷔작**

*** 빅토리아 애비야드의 베스트셀러 「레드 퀸」, 레이 바두고(Leigh Bardugo)의 베스트셀러 「SIX OF CROWS」가 결합된 듯한 방대한 판타지 소설**

네 곳으로 쪼개진 왕국, 네 명의 여왕이 다스리는 과다라에서 끔찍한 살인사건이 벌어진다. 희생양은 놀랍게도 각기 다른 네 영역, 분명 하나의 왕국이지만 따로 떨어진 영역을 지배하던 여왕들이다. 매일 아침부터 밤까지 행인들 주머니 터는 일로 먹고 사는 케랄리는 우연히 이 충격적인 범죄 장면을 목격하고, 보이지 않지만 늘 팽팽했던 왕국의 세력 싸움에 끼게 된다. 수호신처럼 자신을 지켜준 사람, 케랄리가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의 목숨을 살려낼 수 있는 비밀을 알아낸 것까진 좋았지만 문제는 성 밖으로 빠져나가는 것. 여느 소매치기들은 꿈도 못 꿀 상대의 주머니도 냉큼 털어내고 순식간에 자취를 감추는 일에 선수인 케랄리지만 삼엄한 경비를 뚫고, 그것도 여왕이 죽임을 당한 엄청난 상황에서 탈출은 불가능에 가깝다. 과연 케랄리는 무사히 빠져나가 남자친구의 목숨을 살릴 수 있을까? 분리된 네 곳에서 살아가는 특별한 종족들, 인간으로 살아가는 케랄리가 그들 사이에서 살아남기 위해 벌이는 치열한 싸움은 예상치 못한 곳으로 흘러간다.

과다라가 처음부터 쪼개진 것은 아니었다. 아키아, 에오니스, 토리아, 루디스까지 네 나라는 원래 하나의 왕국이었지만 네 곳에 사는 종족은 공존할 수가 없었다. 땅에서 경작하는 법은 전혀 모르는 에오니스의 구성원들, 세세한 일까지 지나치게 신경 쓰는 토리아의 인간들, 몸 쓰는 일은 단 1분도 견디지 못하는 루디스의 종족들, 그리고 이들과 공통점이라곤 없는 아키아 종족들은 결국 경쟁을 끝내며 거대한 벽을 세웠다. 서로 함께 하되 따로 지내는 것으로, 그렇게 자신들이 사는 땅을 서로에게서 지키고 보호하는 것으로 합의를 본 것이다. 네 곳이 완전히 쪼개질 수 없는 이유는 과다라가 하나의 생태계를 이루기 때문이다. 각 영역이 해야 하는 기능이 있고, 하나라도 사라지면 모두가 죽고 만다. 그리고 각 영역에서만 할 수 있는 기능이 모두를 먹여 살린다. 네 영역 사이에서 오가는 모든 거래는 여왕의 승인이 있어야 가능하다. 각자 엄격한 법과 규칙을 마련하고, 자기 영역의 구성원들이 그 규칙에 따라 허락을 받고 전기든, 농작물이든, 물건이든 거래하도록 되어 있다. 겉으로 보기엔 네 곳은 균형을 잘 맞춰서 평화롭게 공존하고 있는 듯 보이지만 필요한 것을 제때 제대로 공급 받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꼭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 서로를 찾아가 조건을 내걸고 협상을 해야 하는 상황이 반복되면서 늘 서로간에 팽팽한 긴장감이 존재했다. 여왕의 통치에 반

대하며 다른 방식을 원하는 세력들도 생겨났다. 그리고 급기야, 여왕의 목숨을 빼앗는 일까지 벌어진 것이다.

이제 열여덟 살이 된 케랄리는 토리아 사람이지만, 다른 영역으로 건너가 ‘작업’을 하곤 했다. 다른 영역의 존재는 절대 혼자서 돌아다닐 수 없고 보호자가 있어야 출입할 수 있다. 케랄리의 유일한 보호자이자 케랄리가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은 바로 마키엘, 매일 소매치기할 대상을 정해주고 케랄리 외에 다른 소매치기들을 키워온 집안의 유일한 상속자였다.

케랄리는 마키엘과 함께 에오니스로 건너가 작업을 벌인 날, 마키엘의 이상한 낌새를 처음으로 감지한다. 그가 정한 목표대로 옷 대신 수백만 마리 미생물이 옷처럼 몸을 뒤덮고 있는 에오니스의 한 남자를 따라가 무릎에 피를 흘리면서까지 가방을 털어오는 데 성공했지만, 어쩐지 마키엘은 기뻐하면서도 슬퍼하는 표정을 지어 보였다. 훔칠 대상과 너무 오래 대화를 나눴다고, 자칫 잡힐 뻔했다며 꾸짖더니, 이내 칭찬하고 잘 했다고 평소 잘 하지 않는, 고맙다는 인사까지 했다. 3년 전, 마키엘의 어머니와 아버지가 치명적인 전염병에 걸려 차례로 목숨을 잃은 뒤, 두 사람은 서로를 의지하며 함께 자랐다. 그러나 케랄리는 도통 마키엘이 무슨 생각을 하며 사는지, 그가 바라보는 눈길 속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지 헤아릴 수가 없었다.

독특한 존재들이 살아가는 과다라 왕국을 무대로, 위험한 일을 해왔지만 순수하고 맑은 주인공의 목숨을 건 싸움을 그린 흥미진진한 판타지 소설이다.

<저자 소개>

아스트리드 스킨(Astrid Scholte)은 호주에서 태어나 뉴사우스웨일스 대학교에서 연극영화·대중매체학을 공부하고 이어 디지털 미디어를 전공했다. 10년 넘게 비주얼 아트 분야에서 일하면서 제임스 카메론 감독의 영화 <아바타>,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의 영화 <틴틴의 모험: 유니콘 호의 비밀>, 조지 밀러 감독의 애니메이션 <해피 피트 2> 제작에 참여했다. 현재 호주 멜버른에 살면서 영화 시각효과와 애니메이션 제작 일을 이어가면서 YA 소설을 쓰고 있다.